

아시아 국가들, 미 국채 수요 둔화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미국 국채 수요가 둔화됐다. 원인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시장이 성숙해져 국내 투자가 늘어난 덕에 미 국채가 이전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 첫 8개월간 외국인들의 미국채 보유 규모는 780억 달러 늘었다. 이는 전년동기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저조한 증가세다. 특히 한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신흥국들의 국채 보유는 정체 흐름을 나타냈다. 아시아 신흥국들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미국 국채를 자본 방과제로 삼기 위해 집중 매입해왔다.

지난달 1일 시작한 2019회계연도에 1조3,000억 달러 국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미 재무부로서는 달가울 리 없다. 하지만 많은 시장 옵서버들은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더라도 국채 판매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낙관한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면서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미국 국채를 사려는 외국 정부, 금융기관, 뮤추얼펀드,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의 미국 국채 바이어는 감소세를 보이는 게 사실이며 그로 인한 수요 공백은 뮤추얼펀드 등 미국 국내 수요가 간극을 메워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채 수요 둔화는 아시아 신흥국, 유럽과 일본 등 전방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배경은 다르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 달러표시 채권을 사는데 따른 환위험을 줄이는 비용이 높아진 게 이유다.

반면 외국인 투자 둔화의 주된 원인인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우는 다양한 배경들이 지목된다. 한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미 국채 투자가 정체된 이들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우 무역전쟁에 따른 교역 성장률 정체와 탄탄한 외환보유액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교역이 정체된 데다, 외환보유액은 넉넉해 미 국채 수요가 예전만큼 못하다는 것이다.

넉넉한 외환보유액은 이들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좀 더 안정적인 상태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미국 연말 쇼핑시즌 소매판매 첫 1조 달러 돌파 전망

미국에서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소매판매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탄탄한 고용시장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향상하고 경쟁 심화에 따른 유통업체들의 프로모션이 확대되면서 소매판매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늘 것으로 기대된다.

6일 '뉴스웍'이 시장조사기관 이마켓터(eMarketer)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연말 쇼핑시즌(11월 1일~12월 31일) 미국의 소매 판매 매출은 1조20억 달러로 전망됐다. 이는 1년 전보다 6%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업체들의 매출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8,783억8,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켓터의 앤드루 립스먼 애널리스트는 이날 성명에서 "온라인 업체가 계속해서 강한 두자릿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관철은 실적을 낼 것"이라면서 "모든 오프라인 업체들이 강한 실적을 내지는 못할 것이고 몇몇은 올해 폐점했지만 강한 소비 경제에서 일부 업체들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계속해서 시장점유율을 늘려 올해 12.3%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은 16.6% 늘어난 1,237억3,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각 회사의 프로모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켓터의 신디 리우 애널리스트는 "업체들이 아마존과 경쟁하면서 무료 빠른 배송과 같은 프로모션이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은 연말 쇼핑시즌을 맞아 아마존 프라임 비회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무료 배송의 최소 25달러 이상 구매 조건을 없앴다. 지난해 아마존은 원래 35달러였던 무료 배송 최소 구매액을 25달러로 낮췄다. 이날 아마존의 발표는 아마존과 경쟁하는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와 타겟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마트의 무료 배송 최소 구매 조건은 35달러다. 타겟은 내달 22일까지 최소 구매액 조건을 없앴다.

“한국,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국 될 것”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 되면 한국이 최대 수혜국일 될 것이라 전망이 제기됐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 영향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미국 바이어들이 대체제를 찾게 돼 비슷한 제품을 수출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중국과 수출품목이 비슷한 한국, 대만, 베트남이 장기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투자를 재배치하면서 이득을 보게 되는 아시아 국가들도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남중국 주재 미 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중 70% 가량이 생산시설을 일부 또는 전부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동남아시아가 압도적인 선호 지역으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기술 기업들, 태

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신발과 장난감, 섬유 제품들의 공급원이 중국으로부터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로 옮겨가고, 전자기와 기계류 공급원은 한국과 멕시코, 터키 등으로 옮겨갈 것으로 내다봤다.

프레데릭 뉴만 HSBC 아시아경제리서치 책임자는 "과거 아시아는 서방 시장에 의존해 역내 자유무역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역내 촘촘히 얽힌 공급망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은 서로를 협력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봤다. 하지만 이제 아시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거세지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더욱 개방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WSJ는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최근 아시아 증시가 하락한 것은 이러한 무역 관계 재편에 따른 호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혜를 입을 기업들이 지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 커머셜 / 인듀스트리얼 - 1031 Exchange



BRE #02036043
714-822-0345
3030 Old Ranch Pkwy. #400
Seal Beach, CA 90740
yeetakre@gmail.com



Yee Tak (탁 이석)
Economics and Certificate in Quality Analysis at Arizona State
건국대 경영학과

부동산에 대한 모든것! 500명 이상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정확한 통계 분석과 네고를 통한 최고의 가격 판매와 최저가 구매

Corona Downtown



Liquor + Building
Liquor \$250,000 + Building \$800,000 + Inventory = 총 \$1,05M + Inventory
리커 매장 3만 1천.
체크싱(볼륨 1M) + 로또 = 넷 1만
총 넷 2만. 인벤토리 약 3만. SBA용자 가능.

Cypress Sorrento



방 4-화 3 2,541sq
Cypress High 학군
Oxford Academy 보도거리
사이프레스내에 가장 선호받는 소렌토 커뮤니티
\$1,035,000

실비치 레저월드 55+



방 2 - 화 1 900 Sq
다양한 편의 시설
편리한 교통을 갖춘 최고의 시니어 단지중 하나인 실비치 레저월드 입니다.
\$228,900